

고흥군, 56억 들여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공형 키즈카페 공간…8월 개관 목표
총 56억원 사업비 투입 연 면적 869㎡ 2층 규모 신축

고흥군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고흥읍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과 드론 체험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육아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 면적 869㎡,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다.

1층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2층에는 드론 기초교육과 시뮬레이

션 조정법을 익힌 후 직접 드론을 조정하며 장애물 피하기와 드론 축구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 연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또 농어촌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부모도 함께 쉬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공형



고흥군,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감도. (사진=고흥군 제공)

키즈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형 키즈카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보성군민 목소리가 예산으로 실현됩니다”

보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군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사업, ▲인구 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사업 제안은 보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도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성군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정보 >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군청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주민 수해도 등 검토를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단, 2025년 10월 1일 이후 접수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검토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 ‘광양꿈빛도서관’ 시범 운영

광양시는 오는 12일부터 ‘광양꿈빛도서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민들이 공간과 주요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시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양꿈빛도서관은 마동근린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연면적 1440.03㎡,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1층에는 자율 창작공간 ‘꿈뜨락’과 교과 연계 도서 및 학습만화 공간이,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 공간 ‘책뜨락’과 어린이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다. 총 1만 417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화 주제는 ‘창의’와 ‘과학’이다.

1층에 마련된 ‘꿈뜨락’은 광양시 최초의 어린이 자율 창작공간으로, 어린이들은 공간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정해진 규칙 없이 ‘어린이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린이 1명당 1일 1회, 50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자료 열람과 공간 이용은 가능하나 도서 대출·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된다.

동부취재본부

순천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 93% ‘만족’…“보성 등 함께 방문”



순천시를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원도심 숙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를 다녀간 외국인의 93% 이상이 순천여행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천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순천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인근 지역 연계, 체류형 여행 트렌드 뚜렷 외국어 안내문 미흡·이동수단 부족 지적

외국인 여행객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네이버 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의 거주지, 방문목적, 주요 활동, 여행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유럽 거주 여행객이 63%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족 단위 자유여행객은 전체 응답자의 43%에 달해 가족 중심의 여유롭고 편안한 소도시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여행트렌드를 보여줬다.

또 응답자의 80% 이상이 2000일 이상 순천에 체류했으며, 다수의 여행객들이 순천을 거점 삼아 보성군 등 인근 지역을 함께 방문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순천이 지역 간 관광 연계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외국인 대상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에서 순천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60%가 매우 만족, 3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은 1%에 불과했다. 이동 수단은 시내버스(52%)가 가장 많이 이용됐고, 렌터카(14%), 택시(9%)가 뒤를 이었다.

일부 외국인 여행객들은 도심 외 관광지로의 이동 수단 부족, 외국어 안내문 미흡, 관광지 및 순천시 내 물품보관소 부족 등을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언급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친화적 관광 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어안내문 확대를 비롯해, 관광택시 증설 등 이동 편의성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순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여행코스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친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순천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2024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인사 특전”

여수시가 작년 하반기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시민 설문 조사를 거쳐 적극 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의 주인공인 공무원 11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등급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설(건축과)이 확정됐다.

우수 등급은 ▲섬 생태관광 1번지 ‘짜목짜목 낭만 낭도’(관광과)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안전총괄과)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세정과) 등 3건이 선정됐다.

이어 ▲매립장 개선·증설공사 예산 절감 및

도비 추가 확보에 기여한 ‘실무형 공무원’(자원시설과) ▲드림스타트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손길’(여성가족과) ▲맑은 물 여수 수(水) 맛보기’ 정수장 공개 체험 운영(상수도과)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산단환경관리과) ▲비예산 정보시스템 보강으로 중단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스마트정보과)

등 5건이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인 우수공무원에게는 확실한 특전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